

가사노동 사회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¹⁾

Determinants on the Socialization of Housework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 수 李基榮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具惠玲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 Young Lee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Hye Ryoung Koo

〈목 차〉

- | | |
|-------------------------|------------------------|
| I. 서론 | IV. 가사노동 영역별 사회화의 결정요인 |
| II.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 V. 결론 |
| III. 가사노동 사회화의 결정요인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1) clarify the determinants on socialization of housework and 2) illuminate the determinants on it according to the domain of housework.

Research methods was literature review.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determinants on socialization of housework were devided two categories. One was the characteristics of market goods and service and the other was the characteristics of homemaker. 2)The determinants on socialization of housework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omain of housework. Through these findings, it is possible to know how housework i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domain and predict the household living of future.

1) 본 논문은 1997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 서론

1. 문제제기

오늘날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상품 생산의 영역이 확대되고 상품들이 가정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게 됨에 따라, 가사노동은 이들 상품에 의해 대체되거나 경감됨으로써 가사양식의 변화, 즉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가정은 자급자족도와 시장의존도를 합리적으로 결합·결정하고 가족원 공동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켜주는 용역가정의 형태가 일반적이다(문숙재, 1990).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의 가계생산이론(Household Production Theory)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계는 자신에게 주어진 총소득의 제약하에서 시장재와 시간을 결합하여 생산되는 가계상품의 조합 중에서 최상의 것을 선택함으로써 효용 또는 복지를 극대화하는데(김외숙 등, 1996), 시장재와 시간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가계상품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항상 의사결정 상황에 놓이게 된다(Brown, 1982; 문숙재, 1990에서 재인용). 이러한 의사결정은 가정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측면 뿐 아니라, 지속적인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초래할 수 있는 대량생산·대량소비에 따른 자원의 낭비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사회의 자원배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사회화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능력화에 따른 합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가정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사노동은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도나 가치, 선호, 수행능력 등이 영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사노동 각 영역별로 사회화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 각 영역에 따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의 가사노동수행양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생산이론에 근거하여 가사노동 사회화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 요인이 가사노동 영역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가사노동 사회화의 적정수준을 모색하고 가사노동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의 가사노동 사회화와 관련된 학위논문(1983년~1995년)과 학회지(대한가정학회지, 가정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9편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재구성하여 분석한 문헌연구이다. 문헌연구를 택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사연구에 기초자료가 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지역이 다른 연구결과들을 그대로 인용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가사노동의 영역을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의 세영역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경영 및 장보기나 가족돌보기 영역의 사회화를 다룬 연구도 있긴 하나, 극히 소수이고 연구결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외시켰다.

셋째,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영리적 사회화로만 국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화를 다루지 못하였다.

II. 가사노동 사회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가사노동의 사회화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정내 생산활동이 가정외부의 사회로 이양되는 것을 뜻하는데, 연구자에 따라 그 개념과 범주가 다르다. 정연주(1987)와 문숙재·정지영(1991)은 가사노동 사회화의 범주에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킬 재화나 용역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산업노동에 의한 대체, 공동으로 처리하는 호혜적 노동에 의한 대체,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공적노동에

의한 대체를 포함시켰다. 이에 반해 이기영(1987), 이은주(1991), 임혜경(1993)은 산업노동에 의한 대체, 즉 영리적 사회화만을 가사노동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기영(1987)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대신에 상품 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적인 가사노동이 공적인 산업으로 해소되는 효과를 갖는 경우로 그 범주를 한정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산업화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가정기기의 사용을 가정내의 가사노동을 유보시키거나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하여 상품대체의 범주에서 제외하였고, 가정부의 고용 역시 시장에서 구입되는 용역에 의한 대체로 볼 수 있으나 가정내의 가사노동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임혜경(1993)은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을 덜어줄 수 있는 측면의 사회화에 대해 초점을 두었으므로 가정부에 의한 대체를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자본주의 생산양식하에서의 시장재의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가사노동의 대체에 초점을 두므로, 가정밖으로의 가사노동의 전이나 가사노동의 분화의 효과를 갖는 재화와 서비스구매에 의한 영리적인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그 범주를 한정하였다.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Reid(1934)의 가계생산에 대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가계생산에 대한 정의에서, 가계생산의 시장대체성을 명시함으로써 가사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편입될 수 있는 노동임을 분명히 해 주었다.

그 이후 Becker(1965)는 시간배분이론에서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것이 가계생산이론으로 발전되었다. 이는 가계가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용역을 통해 직접적인 효용을 얻는다고 보는 전통적인 미시경제이론과는 달리, 가계상품(household commodities)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는다고 본다. 가계상품은 시장에서 구입된 재화와 용역, 그리고 가정에서의 시간을 투입하여 생산되는데, 가계는 시간과 소득, 생산이 일어나는 환경의 제약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제약하에서 시장재와 시간을 결합하여 생산되는 가계상품의 조합 중 최상의 것을 선택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Ehrenberg와 Smith(1985) 역시 가사노동시간이 시장재와 여러 형태의 조합으로 결합하여 동일한 효용을 가진 가계상품을 생산한다고 봄으로써, 가사노동과 시장재가 효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 대체적인 관계가 있고 가사노동이 시장재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가계는 시장재와 가사노동시간을 어떻게 배합하느냐, 다시 말해 가사노동을 어느 정도로 사회화 하느냐에 따라 가계상품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시장재의 특성, 소득이나, 시간, 생산이 일어나는 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용이 큰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Weagly와 Norum, 1989; McCracken과 Brandt, 1990; Cho, 1993).

한편,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직접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된 가계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Lancaster(1966)의 특성접근법이 있다. 전통적인 신고전파의 소비이론이 상품선택시 상품자체가 주는 효용 정도에 의해 소비자가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에 반해, 특성접근법은 상품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 효용을 얻게 되며 이에 의해 선택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예를 들면, 시장재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특성 때문에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Yang, 1989; 제미경, 1993). 시간절약특성 외의 경제성, 품질, 이용가능성과 같은 특성도 시장재 선택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3절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에 기초하여 가사노동 사회화수준의 결정요인을 크게 시장재의 특성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가정관리자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시장재의 특성은 시간절약특성, 품질, 경제성, 이용가능성으로 분류하였고, 가정관리자의 특성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인적자원에는 시간, 가사노동수행능력, 가정지향적 가치를, 물적자원에는 소득과 가사노동수행환경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가정관리자의 특성인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은 상황이나 목표, 질이나 양과 관련하여 동일한 대상일 지라도 연속선상의 위치가 달라지고 자원이나 장에

로 가능하게 된다(임정빈 등, 1995). 예를 들어 가사노동수행능력이나 가정지향적 가치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데는 자원이 되지만, 사회화하는 데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재의 우수한 품질은 사회화를 하도록 촉진시키지만, 반면에 좋지 못한 품질을 가졌다고 인식될 때는 사회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의 사회화수준을 결정할 때는 여러 요인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사노동의 사회화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2: 가사노동 영역별로 사회화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힌다.

Ⅲ. 가사노동 사회화의 결정요인

특정 가사노동을 할 때, 시장재와 가사노동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여 가계상품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시장재의 특성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가정관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1. 시장재의 특성

(1) 시간절약특성

가정관리자는 가사노동을 사회화할 때, 시장재가 갖는 시간절약효과를 고려한다. 시장재를 많이 사용하면 가사노동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춘 등(1989)과 김영란(1989)은 저장식품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을 절약해 주고 간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거나 옷수선집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는 옷만드는 시간을 절약해준다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김영란, 1989; 이미숙, 1990). 또한 식사준비가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

경희·문수재 등, 1989). 이는 시장재가 갖는 시간절약효과가 상품의 효용을 구성하는 특성 중의 하나임을 보여준다.

(2) 품질

오늘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시장에서 제공되는 시장재의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특별한 기술에 의해서 생산되는 시장재가 많아졌다. 이러한 시장재를 구입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를 가정에서 직접 생산할 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므로 전문가, 기술자에 의해 생산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이수정, 1991). 반면에 대량생산된 재화나 용역이 비용에 비해 품질이 좋다고 하여도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측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김귀란(1991)의 연구에서는 저장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가 위생적이지 못하고 맛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부들은 편의식품이 건강에 좋지 않고 비위생적이며 맛이 없기 때문에 불만족하였다(강정옥, 1983; 허성미, 1995). 따라서 시장재의 품질이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경우에는 사회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비교적 기술을 요하는 가사노동은 시장재의 품질이 더 좋기 때문에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다. 김영란(1989)은 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는 이유가 디자인이나 품질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기춘 등(1989), 이미숙(1990)은 솜씨가 좋기 때문에 옷수선집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3) 경제성

가사노동을 통해 가계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대량생산된 시장재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으며 가족이 적은 경우라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시장재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김영란(1989)과 이기춘 등(1989)의 연구에서 장류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이유가 경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취업주부가 저렴한 비용의 라면을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이승미, 1989)는

라면이 식사준비 시간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4) 이용가능성

경험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재가 갖는 또 다른 특성 중의 하나로 이용가능성이 있다.

시장재의 이용가능성은 시장재가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 시장재에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소비자가 시장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문숙재, 1990; Magrabi, Chung, Cha와 Yang, 1991).

예를 들어, 각종 편의식품이나 기성복의 이용을 통해 식생활이나 의생활관련 가사노동이 많이 대체되고 있는데, 이는 개별 가정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기업이 대량생산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가사노동이 자본의 이윤추구에 의해 일차적으로 사회화되고 이용하기도 쉽다. 그러나, 가족돌보기와 같은 가사노동은 이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사기업에 의해 사회화되기 어렵고, 자녀양육과 같은 서비스가 상품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도 이윤추구에 적합하지 않아 저렴화되기 어려워 그것의 구입이 일부 고소득층에만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김혜경, 1985). 또한 가족돌보기는 가족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특별한 생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 유급의 용역에 효과적으로 위임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2. 가정관리자의 특성

(1) 물적자원

1) 소득

가계소득이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전자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가계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가계상품의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만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자본제상품의 생활지배에 점차 거부감을 갖게 되고, 가정기기를 이용하거나 가사대체

용역을 고용함으로써 가사노동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의 상승이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이기영, 1987).

소득이 증가할수록 외식 및 배달서비스, 의류, 세탁소 및 옷수선집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았고(정연주, 1987; 이기영, 1987; 김귀란, 1991; 우경옥, 1991; 이재희, 1991; 문숙재·정지영, 1991; 백유진, 1995), 주생활의 사회화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숙, 1990; 김영숙·심미영, 1991). 반면, 김영란(1989)과 우경옥(1991)의 연구에서는 외식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춘 등(1989)의 연구에서는 주택을 손수 수리하거나 옷수선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연주(1987)와 백유진(1995)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편의식품의 이용도가 높아지다가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되면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상승이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가사노동수행환경

가사노동수행환경 중에서 가사용품과 주거유형이 가사노동 사회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사용품은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 다양하게 영향을 준다. 가정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가정 밖으로 이양되었던 가사노동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기업이 가정기기에 맞는 새로운 재화를 개발함으로써 가사노동을 재화로 대체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전자의 예에는 재봉틀이 있다. 재봉틀과 같이 관련된 가계생산의 성과가 대응하는 시장대체품에 의해 재화나 용역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유가 가사노동 사회화를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옷수선집을 이용하는 이유에는 재봉틀이 없다는 이유가 포함된다(이기영, 1987; 이기춘 등, 1989; 김영란, 1989; 이미숙, 1990). 또한 후자의 예에는 전자레인지가 있다. 전자레인지

의 보급과 더불어 냉동식품이나 레프르뜨식품 등의 상품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오히려 진전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산업화에 따른 주거유형의 변화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촉진요인으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기영, 1987). 김영란(1989)의 연구에서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장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에서는 장을 담고 보관하는 일이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 인적자원

1) 시간

본 연구에서는 시간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취업 여부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가계상품을 생산할 때는 가사노동시간이 필요한데(Becker, 1965), 우리나라의 취업주부들이 가사노동시간의 제약을 경험하기 때문이다(이승미, 1989).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 가족구조하의 성별 분업관념이 내재된 여건속에서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면서 가정밖의 생산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취업주부는 취업자체에서 시간부족을 느끼기 보다는 취업으로 인해 제한받는 가정내 역할, 즉 가사노동 시간의 제약을 느끼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사회화하게 된다.

이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저장식품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친지로부터 가져다 먹는 경향이 높았고(정연주, 1987; 이은주, 1991; 백유진, 1995), 편의식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으며(강정옥, 1983; 이기영, 1987; 이승미, 1989; 백유진, 1995), 외식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춘 등, 1989; 우경옥, 1991). 이를 통해 시간부족이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도록 하는 촉진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가정지향적 가치

가정지향성은 가정의 고유성이나 개별성을 중시하고 가족중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정지향적 가치를 갖는 주부는 가족원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주려는 의도에서 가정의

고유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결정할 때도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이기영, 1987).

따라서 가정지향적 가치로 인해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지연될 수 있다. 가정에서 직접 장을 담그는 이유가 가사노동이 가정의 고유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주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이기영, 1987), 시장에서 반찬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가족의 반찬은 주부가 직접해야 한다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1989).

3) 가사노동수행능력

합리적 사고와 효율성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고 여자들도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가 증대되면서 전통적인 가사기술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가사노동전반에 관련되어 기술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구매를 포함해서 집안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기술, 자녀양육이나 가정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실제로 기술도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이고 시간이나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가사노동 수행능력의 부족은 해당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해 구매나 자녀양육, 관리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가사기술도 향상되므로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이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이기영, 1987).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사노동 각 영역별로 수행능력과 사회화와의 관계를 보지 않고 가사전반에 걸친 수행능력과 사회화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람이라도 가사작업에 따라 수행능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사노동 수행능력의 영향을 자세히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기영(1987)의 연구에서는 의생활 관련 가사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의류나 침구류 등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김영란(1989)은 시장에서 옷을 구입하거나 옷수선집을 이용하는 이유가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장을 담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장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춘 등, 1989; 김영란, 1989).

IV. 가사노동 영역별 사회화의 결정요인

여기서는 3절의 결과를 재구성하여 가사노동 영역별-식생활, 의생활, 주생활-로 가사노동의 사회화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1. 식생활 사회화수준의 결정요인

식생활의 사회화는 저장식품(된장·고추장·간장의 장류와 김치), 편의식품(손질된 식품재료나 반조리식품, 냉동식품, 가공식품, 또는 시장에서 만든 반찬)의 구매를 통한 재화의 대체와, 외식 및 배달서비스 이용(가족단위의 외식이나 음식을 주문해 배달시키는 것, 또는 식품배달서비스를 이용)에 의한 서비스 대체로 분류한다.

(1) 저장식품의 구매

저장식품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이유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이기춘 등, 1989; 김귀란, 1991) 집에서 담그는 것보다 경제적이다(김영란, 1989; 김영란 등, 1991) 장을 담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이기춘 등, 1989; 김영란, 1989). 또한 아파트에 살게 되면 기술이 있어도 장을 담그고 보관하는 작업이 여의치 않게 되므로 사회화가 진전되기도 한다(강정옥, 1983; 정연주, 1987; 이기영, 1987; 백유진, 1991).

한편, 김귀란(1991)의 연구에서는 저장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가 시장재의 좋지 못한 품질 때문이라고 하였고, 가정지향적인 가치를 갖는 주부는 가정에서 직접 장을 담그는 경향이 높았다(이기영, 1987).

한편, 다른 가사노동 영역과 달리 저장식품의 사회화 정도는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영, 1987; 김영란, 1989; 백유진, 1995).

결론적으로, 저장식품을 시장에서 살 것인가 가정에서 직접 담글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시장재의 시간절약특성·품질·경제성, 가사노동 수행능력·가정지향적 가치·가사노동 수행환경 등을 고려한다고 할 수 있다.

(2) 편의식품의 구매

시간제약이 큰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편의식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강정옥, 1983; 이기영, 1987; 이승미, 1989; 백유진, 1995). 시간부족을 겪는 상황은 취업주부라면 동일하지만, 고소득 취업주부와 달리 금전적인 이유로 취업한 저소득층 주부는 소득제약으로 인해 편의식품을 이용하는 수준이 낮았다(이기영, 1987; 이승미, 1989). 그러나, 라면의 경우는 예외여서 고소득 취업주부보다 저소득 취업주부 가계의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이승미, 1989), 이는 가정에서의 식사를 라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경제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소득과 편의식품구매와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편의식품의 이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정옥, 1983; 정연주, 1987; 이기영, 1987; 김영란, 1989; 이승미, 1989; 제미경, 1993; 백유진, 1995; 허성미, 1995). 특히 정연주(1987)와 백유진(1995)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편의식품의 이용도가 높아지다가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되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소득의 증가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계속 진전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부들은 편의식품에 대해 건강에 좋지않고 비위생적이며 맛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옥, 1983; 허성미, 1995)

이를 종합하면, 편의식품의 사회화 수준을 결정할 때는 시간제약, 시장재의 품질·경제성, 소득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3) 외식 및 배달서비스의 이용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외식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이기춘 등, 1989; 우경옥, 1991) 시간제약이 외식을 하도록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취업주부라도 주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외식이 증가한다는 결과는(이기춘 등, 1989; 우경옥, 1991) 소득이 외식을 하는 데 제약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외식과 배달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정연주, 1987; 이기영, 1987; 김귀란, 1991; 우경옥, 1991; 백유진, 1995), 외식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었다(김영란, 1989; 우경옥, 1991).

또한 식사준비가 번거롭고 힘들어서 외식을 한다고 한다는 경우도 있었다(손경희·문수재, 1988). 따라서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하고 생활을 간소화하기 위해 외식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시간제약, 소득, 시장재의 시간절약 특성이 외식 및 배달서비스의 이용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의생활 사회화수준의 결정요인

의생활의 사회화는 의류구매(침구류, 수예품 포함)에 의한 재화의 대체와 세탁소 및 옷수선집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대체로 분류한다.

(1) 의류구매

의류 등을 구매하는 이유는 옷만드는 시간을 절약해주고(김영란, 1989), 디자인이나 품질이 좋으며(김영란, 1989), 옷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영, 1987; 김영란, 1989). 한편 이기춘 등(1989)의 연구에서는 의류 등을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비싼 가격을 들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의류 등의 사회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이기영, 1987; 이기춘 등, 1989) 소득의 부족이 의류 및 침구류의 구매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류나 침구류, 수예품 등의 구매결정에는 시장재의 시간절약특성·품질, 가사노동수행능력, 소득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2) 세탁소 및 옷수선집의 이용

세탁소나 옷수선집을 이용하는 요인에는 시장재의 우수한 품질을 들 수 있다(이기춘 등, 1988). 또한 옷을 수선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옷수선집을 이용하기도 한다(김영란, 1989). 하지만 옷수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재봉틀이 없기 때문에

옷수선집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이기춘 등, 1988; 김영란, 1989).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세탁소나 옷수선집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다(이기영, 1987; 이기춘 등, 1988; 문숙재·정지영, 1991).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저소득층은 기술을 요하는 어려운 부분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세탁이나 다림질, 수선이 가능한 것은 직접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소득이 높은 계층은 화폐절약의 측면보다는 자신의 기술을 고려하여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았다(김영란, 1989).

결론적으로, 시장재의 품질, 가사노동 수행능력, 가사노동수행환경, 소득이 의생활 관련 서비스 이용에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3. 주생활 사회화수준의 결정요인

주생활의 사회화는 주택수리나 가구·가전제품수리 등의 서비스에 의한 대체를 의미한다.

주생활의 사회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정요인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주생활 관련 가사노동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생활 영역의 사회화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다는 문숙재·정지영(1991)의 연구결과는 가사노동 수행능력으로 인해 가사노동을 서비스로 대체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소득이 주생활의 사회화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김영나, 1989; 이강숙, 1990; 김영숙·심미영, 1991). 이는 저소득층이 주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생활 부문의 서비스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상품의 개별성이 크며 가격분산이 크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가사노동 수행능력, 시장재의 품질, 소득이 주생활 사회화정도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해 가계생산이론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

고, 가사노동 각 영역별로 사회화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가사노동의 특성과 수행양식을 파악하고 미래의 가정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는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을 결정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시장재의 특성 뿐 아니라 가정관리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계가 시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사노동의 주체가 되어 가계상품에 소비자의 주체성을 반영시키고 조합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장재나 가정관리자의 특성에 의해 가사노동의 사회화수준이 결정되지만, 이 요인들이 가사노동을 촉진시키거나 혹은 지연시키는 등의 일관된 방향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체제가 계속 발전한다고 해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양식으로 가사노동이 수행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사노동 영역별로 사회화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노동의 특성과 수행양식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저장식품의 구매여부에는 다른 영역과 달리 소득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정지향적 가치가 사회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저장식품이 음식의 기본이 되며 가정의 전통이나 솜씨가 제일 많이 반영되는 식품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시간계약이 편의식품과 외식 및 배달서비스의 이용에 결정요인으로 나타나, 시간계약이 큰 취업주부가 자주 이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식사준비가 의복관리나 주택수리처럼 편한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주부들은 저장식품과 편의식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평가하고 이로 인해 시장재 구입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생활이 가족의 건

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저장식품과 편의식품의 품질이 개선된다면 이들의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의류구입시 시장재의 시간절약특성·품질, 가사노동수행능력, 소득 등이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의복은 이미 기성복이나 맞춤복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²⁾ 의복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의복을 살 것인가 가정에서 만들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은 많은 가계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의복제작을 가사노동이 아닌 취미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파악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가사노동수행능력의 부족이 의생활, 주생활, 저장식품을 사회화하도록 작용하였다. 특히 의생활과 주생활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이 산업노동으로 많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가사노동의 기술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고, 저장식품 만들기과 같이 전통적이고 시간이나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가사작업은 취업여성의 증가, 편의주의적인 가치관의 보급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점점 감소되어 가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이기영, 1987).

끝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화된 척도를 가지고 가사노동 전 영역에 걸쳐 가사노동 사회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같은 가정관리자라도 가사노동 각 영역에 따라 사회화하는 이유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려 주고, 또한 각 가사노동 영역별로 결정요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가사노동이 어떠한 양식으로 수행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정옥(1983).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실태조사. 건대 석사학위논문.

2) 조사대상자(서울 거주 247명의 주부를 대상)의 99.2%가 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거나 전문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1991).

- 2) 김귀란(1991).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사회화실태 및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연대 석사학위논문.
- 3) 김영란(1989). 가사노동에 관한 계급별 사례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4) 김영숙·심미영(1991). 가사노동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1-207.
- 5) 김의숙·이기영·최은숙(1996).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6) 김혜경(1985). 가사노동이론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7) 문숙재(1990). 가정생산. 신광출판사.
- 8) 문숙재·정지영(1991). 가사노동서비스영역의 사회화와 그 만족 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31-152.
- 9) 백유진(1995). 가사노동 사회화와 관련변인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10) 손경희·문수재 외 4인(1988). 도시 주부의 식품 소비 구조 변화와 미래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53-66.
- 11) 우경옥(1991).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실태 및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12) 이강숙(1990).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과 사회화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 13)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4) 이기춘·이은영·이기영·황인경·김민자·김영옥(1989). 산업사회의 소비자행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2), 115-132.
- 15) 이미숙(1990).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16) 이수정(1991). 가사노동 사회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17)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8) 이은주(1991). 가사노동의 사회화및 관련변인 고찰. 숙대 석사학위논문.
- 19) 이재희(1991). 도시가정의 가사관련서비스구매 및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중대 박사학위논문.
- 20)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1995). 가정관리학, 학지사.
- 21) 임혜경(1993).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 가사노동 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간의 인과관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22) 정연주(1987).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23) 제미경(1994).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요구와 소비행동.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24) 허성미(1994).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25) Becker, G. S. (1965). A theory of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26) Brown, C. (1982). Home production for use in a market economy. Rethinking the family. In Thorne, B. and Yalom.(Eds). New York and London : Longman, 151-167.
- 27) Cho, Y. H. (1993). The analysis of household expenditures for services. Dissertation. Cornell Univ.
- 28) Ehrenberg, R. G. & Smith, R. S.(1985). Modern labor economic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29)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Prentice Hall, Inc. Eaglewood Cliffs N. J.
- 30) Lancaster, K. (1966). A New approach to consumer theo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4, 132-157.
- 31) McCracken, V. A. & Brandt, J. A. Time value and its impact on household food expenditures away from hom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8(4), 267-285.
- 32) Magrabi, F. M., Chung, Y. S., Cha, S. S., & Yang, S. J. (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2-15.
- 33) Reid, M. G.(1980). The Household as producer-a look beyond the market. Proceedings of a

- workshop sponsored by the family economics-home management section of the AHEA.
- 34) Weagly, R. O. & Norum, P. S. (1989). Household Demand for Market purchased, home producible commoditie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8(1), 6-18.
- 35) Yang, S. J. (1989). Expenditures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8(2), 133-147.